

주일 낮예배 |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요한복음4:24)

| 오전 9:00 | | 오전 11:00 | 인도 / 김동오목사

예배의부름 인 도 자

■ **경배찬송** 다 함 께

36.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당신은 영광의 왕(ccm)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 께

기도 | 송수진집사 | 신재희장로

성경봉독 인 도 자

욥기 42:1-6

찬양 | 감사 위에 감사 교사 중창단

II 감사로 찬양 드리세 호산나찬양대

설교 김동오목사

"옴의 회개와 감사"

기도 다 함 께

봉헌 다 함 께

591. 저 밭에 농부 나가

목회기도 설 교 자

성찬예식 인 도 자

229. 아무 흠도 없고

■ **결단의찬양** 다 함 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ccm)

■ **축도** 설 교 자

■ 경건한 마음의 표시로 일어섭니다. ■ 다음기도 / I. 선상이집사

■ 헌금은 예배 전에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II. 김한수장로

■ 11월 3일 / 시 146 윗 1:1-18 히 9:11-14 막 12:28-34

주일 오후 찬양예배

오후 1:30

경배와찬양 (인도) 김재중목사

< 추수감사주일 구역찬양축제 >

축도 김동오목사

수요저녁예배

오후 7:15 인도 / 김재중목사

경배와찬양 (인도) 코람데오찬양단

기도 한승국 집사

성경봉독 레위기 20:22-27 인 도 자

설교 "강력한 형벌의 이유" 김재중목사

기도 다 함 께

찬송 436. 나 이제 주님의 새 새명 얻은 몸 다 함 께

축도 설 교 자

□ 다음 기도 / 정연자집사

새벽기도회

새벽 5:00 인도 / 김동오목사

· 월 28일 갈라디아서 5:1-12 진리에 순종할 때 참자유를 누립니다

· 화 29일 갈라디아서 5:13-26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삶

· 수 30일 갈라디아서 6:1-10 사랑으로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법

· 목 31일 갈라디아서 6:11-18 주님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 금 1일 시편 62:1-12 하나님만 바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 토 2일 시편 63:1-11 내 생명보다 소중한 하나님 사랑

· 일 3일 시편 64:1-10 악한 원수들에게 활을 쏘시는 하나님

* 새벽기도회 목상 말씀은 Q.T 교재 <생명의 삶>(두란노) 해당 날짜 본문과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구역찬양축제 순서

진행 / 강호길간사 김성수집사

순서	구역	구역장	찬양곡	반주
1	25구역	김은지	감사송	MR
2	23구역 24구역	이미라 장라정	나를 사랑하는 주님	MR
3	36구역	신윤미	너는 꽃이야	MR
4	18구역	강철규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원신희
5	11구역	김봉숙	338장 내 주를 가까이	원신희
6	26구역	천현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MR
7	29구역 39구역	신재희 김창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최옥경
8	12구역	한영숙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원신희
9	13구역 14구역	김영숙 정무자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최옥경
10	45구역	이순옥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원신희
11	35구역 41구역 44구역 49구역	전소영 정연자 전희정 고재석	나의 하나님	MR
12	21구역	금은정	소풍	신지혜
13	42구역	오순남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원신희
14	15구역	구자임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원신희
15	32구역 33구역 34구역	정미숙 신현희 원신희	내게 강 같은 평화	MR
16	46구역	이정희	주의 은혜라	최옥경
17	43구역	윤여주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최옥경
18	22구역 31구역	전정옥 신동희	같이 걸어가기	MR
19	19구역	전대근	찬양 메들리	LIVE

- 추수감사주일 : 10월 27일(주일) / 성찬예식 / 점심 간편식
 - 구역별 찬양축제 : 10월 27일(주일) 오후 1:30 / 리허설 당일 오후 12:30~
 - 오후 어린이 돌봄 : 낮 1:00~ . 1층 어린이부실
- 강원칼넷 평신도지도자 세미나 : 11월 2일(토) / 가평 오론비전빌리지
 - 출발 : 당일 오전 8:20
 - 회비 납부 : 1만원, 새마을금고 9002-1807-8964-7 태장성결교회
-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 : 11월 3일(주일) 2부 예배 직후, 대에배실
 - 여전도회 연합회 회원 : 각 여전도회 임원, 시무권사
- 제4여전 소풍 : 10월 31일(목) 오전 8:30 출발, 가평 베고니아새정원
- 공동식사 쌀 대접 : 이재수 조순례 황호훈 구자임
- 커피 대접 : 함용만 윤여주

성경 및 헌금 계좌 안내

- 태장성결교회 공식 성경은 [새번역성경]입니다. 성경 찬송 구입 원하시는 분은 예배부장 신동희권사께 문의하세요.
- 헌금 계좌번호
 - 입실조.감사.건축 / 농협 213-01-166145, 태장성결교회
 - 예) 입실조 - 000십, 감사헌금 - 000감, 주일(정)헌금 - 000주
 - 선교헌금 / 새마을금고 4315-09-005272-5, 태장성결교회(선교부)
 - 나눔헌금 / 새마을금고 9002-1353-6796-9, 태장성결교회(나눔위)

목회계획

10.27-11.2	11.3-9	11.10-16	11.17-23
10.29. DPA (on-line) 10.30. 감.홍양교회방문 11.1. 코칭넷(수백)	8. 고은비정년 졸업연주회	10. 남전연합회 총회 각 여전도회 총회 12. DPA포럼 (서울성락)	17. 각 남전도회 총회 사랑의 물품 나누기 청년 가을 소풍 19. 교역자회의(예경) 22. 금요저녁기도회

봉사위원

구분	10.27	11.3	11.10	11.17
차량 운행	1호 강대봉 2호 신재희	강병린	강대봉 수요	이철성 교역자
주방	간편식	34.43.46구역	41.42.44구역	21.23.25구역
오후 돌봄	청년	김종순 김춘자	강은숙 김재욱	장영희 최옥경
청소(화장실)	청년	8여전	2남전	3여전
봉헌	1부 : 10.신동희	11.김은정	2부 : 10.김문배	11.김은숙

우리 교회는!

-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 성숙한 신앙공동체를 꿈꾸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배우기를 힘씁니다.
-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꿈꾸며, 이를 위해 교회 프로그램 전반에서 가정을 배려합니다.
- 지역사회와 더불어 섬지며,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합니다.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00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4금 오후 8:00
주일 오후찬양예배	오후 2:00	포에버예배	목 오후 12:00
수요저녁예배	오후 7:15	구역장교육	수 새벽/저녁
주일 영유아예배	오전 11:00	성장반 훈련	화저녁 / 수오전
주일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전도모임	토 오전 10:50
주일 청소년예배	오전 11:00	구도모임	구역별 별도시간
주일 청년예배	오후 1:00	주말교회청소	기관별 별도시간

태장성결교회 가는 길



시내버스 /
3, 4, 6, 7, 41, 42번
정밀아파트 앞 하차

교회 버스 /
주일 낮, 수요, 새벽예배
차량 운행시간표 참조

섬기는 분들

- 담임 목사 : 김동오
명예 목사 : 채수환
부담임 목사 : 김재중
청소년감사 : 강호길
선교사 : 황노헤미야 임에스터 (T국)
박에덴 베들레헬 (L국)
최용락 이민숙 (K국)
박종민 이인덕 (T국)
지영환 김희수 (V국)
최경민 김은진 (G국)
- 시무장로 : 김인택 신재희 김한수
원로장로 : 박병운
명예장로 : 황호윤 김성제
은퇴장로 : 김정원
찬양지휘 : 고재석
반주 : 원신희 변찬미 사공수인
신지혜 박예강 이하민
최은선
- 협력사역 : 강원코칭넷 강원칼넷 DPA
서울신학대학교 아이행복마을
원주북원노인종합복지관
원주소망주기복지센터
- 협력교회 : 가평더사랑 귀은 서원주
영동 주님의 주사랑
주비전소트리 한우리

옴의 회개와 감사

옴은 옴기3-41장에서, 재난의 원인이 죄라든가, 신앙단련 과정이라는 친구들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재난을 당할 정도의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42장에서 갑자기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3절에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알지도 못한 일을 떠들어서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6절에서는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옴이 회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옴기 38-41장에서 하나님님이 이 논쟁에 개입하십니다. 지난주 살린 38:4에서 "내가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부터 시작하여 자연의 장엄하고 신비한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앞의 논쟁에서 옴도 이미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전능하심을(9:10) 말했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옴이 회개한 실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5절에서 간접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옴은 하나님에 관하여 지금까지 '듣는' 수준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나 거부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리신다. 이런 가르침을 알고, 이런 앞의 양으로 자신을 내세우고, 이런 앞의 양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러나 앞의 근본에 대해 평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듣기만'한 삶을 사는 거죠.

세례를 생각해 봅시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의식입니다. 세례로 시작한 기독교인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고후5:17)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주님으로 새롭게 사는 삶입니다. 이 새로운 차원의 삶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경험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옴이 '티끌과 잿' 가운데 회개합니다. 죽음의 자리에 직면하여 '생명이 무엇인지 절감했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계속 영생을 얘기합니다. 옴은 이 자리에서 생명의 실재를 보았습니다.